

광주시 조례안 제정·관리 '허점'

상위법 배치되고 법률 폐지·변경 모른 채 예산까지 편성

시의회 시정 촉구

광주시가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이미 법률이 폐지됐거나 바뀌었는데도 관련 조례를 그대로 방치, 예산까지 편성하는 등 조례안 제정·관리업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3일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조례안 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유재신(민주·광산2) 의원은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근거로 내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 27억8천만원을 책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3월 이 법률안 명칭이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만큼 해당 조례안을 먼저 고친 뒤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방신'을 당한 뒤 뒤늦게 고친 경우도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05년 발의, 제정한 '사무위임 조례'의 경우 '총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협의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했지만 이는 상위법령인 건축법(11조1항), 건축법 시행령(8조1

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위법령에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같은 잘못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위법·부당한 건축허가만 28건에 이른다. 광주시는 지난 10월에야 이 조례를 개정했다.

이밖에 지난해 8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근거로 제정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여지껏 고쳐지지 않아 '직무태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물류정책위원회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한 것 아

니하는 비판도 일고 있다.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제정한 '광주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애로 해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제통상국장의 명칭이 1년전 조직개편때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됐음에도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로 명시하는 등 변경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도 조례안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남극 최고봉서 U대회 광주 유치 기원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흥빈 대장 광주시 찾아 성공 등정 다짐

세계 7개 대륙 최고봉 완승에도 전 중인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흥빈(45·에코로바 홍보이사)씨가 남극 최고봉에서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한다.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흥빈 대장은 3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박광태 광주시장과 만나 "등정에 반드시 성공해 광주 시민들의 하계U대회 유치 염원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결의를 전했다.

이에 박광태 광주시장은 "연령

균 기원이 영하 50도나 되는 혹한의 극지에서 장에이라는 약조를 이겨내고 도전에 나서서 원정대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원정대의 승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흥빈 대장은 남극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4,897m)에서 '광주시 기(旗)'와 '2015년 하계U대회 광주유치 기원' 홍보기를 들고 광주시의 U대회 유치 의지를 세계에 알리겠다. 자신의 끊임없는 도

전처럼 지난해 유치 실패를 밑거름 삼아 2015 하계U대회 광주 개최를 기필코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장은 지난 5월 8일에도 세계 제5위봉인 네팔 히말라야의 마칼루(8,463m) 정상에 올라 '2013 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했다.

순천 출신인 김흥빈 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등반 도중 동상에 걸려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장애인 등반가로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6개 대륙 최고봉을 올랐다. 이번 등정에 성공하면 양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2008 남극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흥빈 대장(왼쪽)이 3일 광주시청을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유치 기원' 홍보기를 들고 U대회 유치 및 등정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김흥빈 대장 등 원정대는 광주일보 등의 후원으로 오는 11일 출국, 이달 중순에 남미 최남단 칠레의 폰타 아레나스에서 군 수송기로 남극대륙에 도착해 빈슨 매시프 등반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순 귀국할 예정이다. 원정대는 이번 등반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움츠러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구 소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사 참여 내년 4월 착공

아파트 800세대 건립

광주시 동구가 소태동 일대에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키로 해 주민들의 숙원 해소는 물론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3일 동구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동구 소태동 지원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 4월 착공해 오는 2013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태동 205번지 일원 5만2천140㎡에 현대식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공동주택 800세대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을 맡기로 했다.

동구는 착공 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오후 소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동구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100여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사업비 등을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어서 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구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했던 주택공사를 설득하기 위해 유태명 청장과 박주선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수십 차례 주택공사 본사와 국토해양부를 찾아 사업 타당성을 설명해왔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 착공과 동구문화센터 건립으로 소태동 일대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며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교통·문화·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주택단지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무등도서관 '장애우 찾아가는 구연동화 교실'

광주시립 무등도서관은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애우를 위한 찾아가는 구연동화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지적장애인 시설인 '즐거움 집'을 직접 찾아가 동화를 들려주는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야기교실 전문지도강사인 한순희씨가 '하얀 눈썹 호랑이' '쫄쫄 한 톨로 장가든 총각' 등을 들려주고 종이접기와 풍선아트 등도 함께 운영한다.

문의는 무등도서관 문헌정보과(062-613-5357)로 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구 당정 정책간담회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3일 청사에서 민주당 동구지구당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 등 당직자들과 '2008 하반기 구정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는 ▲2009 지구 재원대책 ▲문화전당 투자진흥 지구 조성 ▲문화콘텐츠지구(CT)연

구원 설립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자치구간 연계조정 ▲지산유원지 활성화와 유원지 지구 해제 ▲제2순환도로 진·출입로 개설 문제 등 동구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같은 동구의 협조요청에 대해 박 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들은 동구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북구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상제 성과 발생량 증가를 감소

광주시 북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포상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100세대 이상 210곳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제를 시행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만6천2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천520t보다 1천522t 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인센티브제를 시행 이전인 지난해 증가율보다 6% 감소한 수치다. 2006년 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만1천836t이었다. 올해 첫 도입한 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는 아파트 음식

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실시했으며 감량 우수 아파트는 42만~115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종량제 봉투 등이 지원된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는 용봉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를 비롯한 신안동 한국하이빌 아파트 등 12곳이다. /이종형 기자 golee@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 총상점 (062) 227-9970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측의 비데전문기업!

비데프라자 | 062-515-1144

이오니아 1석 2조 테스트!

평범히 더운수기 위생등급 개선효과와 헹가래 불꽃청소가 중점행사!

하온수기 구매시 로봇청소기 1+1 중점행사를 실시합니다. 평범히 더운수기로 건강도 헹기고, 로봇청소기까지 덤으로!

IONIA 1544-1219